

광주학생운동 주역 장재성 선생, 73년만에 명예회복 될까

진실화해위 조사 개시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 되길 바랍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고(故) 장재성(1908~1950)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손자 장운영(51)씨의 바람이다.

이번 진화위 조사를 계기로 지난 1962년 건국공로훈장 추서 대상자로 결정했다가 좌의 활동을 이유로 취소된 장재성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다시 내려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족과 장재성기념사업회는 역사적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훈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기 진화위는 지난 7일 제51차 위원회를 열고 '장재성의 광주학생운동을 통한 항일독립운동' 등을 포함한 1358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1908년 광주에서 태어난 장재성 선생은 1926년 11월 학생비밀결사단 '성진회'를 결성해 일제에 저항하다 체포돼 학생독립운동 관련 최고 형량인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장 선생은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 재학 시절인 1926년 광주지역 학생 등의 항일 비밀운동 단체인 성진회를 조직했다. 그는 1929년 6월에 성진회를 독서회로 확대 개편해 활동을 이어갔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어난 한·일 학생들 간 충돌로 촉발된 흐름이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독립운동으로 폭발했다.

광주고보 학생들은 메이지 왕의 생일 '명치일' 기념식장에서 가미카제를 부르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한편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 후 광주시내에

학생비밀결사 성진회·출소 후 조선유학생연구회 결성 등 항일운동 광복 후 공산당 가입 전력에 6·25 때 총살... 건국공로훈장 추서 불발



장재성(오른쪽) 선생과 부인 박옥희씨. <장재성기념사업회 제공>

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시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일제에 맞선 학생들의 동맹휴업(맹휴) 투쟁과 전국 학생운동의 중심에는 장 선생이 있었다. 장 선생은 '일본 학생의 한국인 여학생 희롱사건'이 벌어지자 격문을 배포하고 투쟁본부를 조직해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11월 12일 2차 항일 시위는 수업 시작 종을 신호로 일제히 교문 밖으로 뛰쳐나와 대규모로 진행됐다. 장 선생은 다음날 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일제에 불합혀 구속됐다.

광주 1·2차 학생독립운동은 이후 12월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했고 이듬해 3월까지 이어졌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장 선생은 일본에서 '조선유학생연구회'를 결성해 민족의식을 높이며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장 선생은 광복 후 1946년 민족주의민족전선 전남대표를 맡았고 1948년 남북연석회의 해주대회 등에 참석해 줄곧 사회주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다 결국 1949년 남로당 가담 혐의로 사찰계 형사들에게 체포돼 7년 형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했으나 6·25전쟁 중 다른 정치범 수감자와 함께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43세였던 장 선생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

이번 진화위 조사대상에 장 선생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자 장재성기념사업회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노성태 장재성기념사업회 이사는 "해방이전에 숨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서훈을 받았지만, 현행법상 해방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은 아직도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조사를 통해 장재성 선생의 항일 운동 업적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화위는 장재성 선생에 대한 조사 이외에도 '완도·강진·광주·나주·담양·목포·무안·영광·영암·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과 전남 동부 7개 시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박재영의 여수적색노동조합 항일독립운동', '오홍택의 전남운동협의회 항일독립운동' 등의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도 결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개나리아니에요, 영춘화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도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12일.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주택가 담장에 영춘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빛원전 핵연료저장시설 포화시점 1년 단축될 것”

산자부 “전국서 가장 빨라”

전국 원전 중 영광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포화시점이 가장 빠르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가 계속운동을 하면서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앞당겨졌지만,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에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지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영광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예상 포화시점은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도 1만 660다발에서 1만 3051다발로 약 20% 증가했다.

이번 재산정에서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제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반영되면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이 1년여 만에 약 25% 증가한 79만 4000다발로 새로 집계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장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건식저장시설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의견정취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광주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 유아교육법 위반

59곳 교직원 보수 지급기준 미공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이 교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수당 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43곳 중 59곳이 교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봉급, 수당의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도 20~3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급여,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규칙을 유치원알리미 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학교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사라진다

코로나 자가진단도 축소

지금까지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새 학기부터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도 폐지되고,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결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